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75년 6월 ‘시론정보사건’ 과 유신독재 처하 중앙대 학생운동



공동 집필
이석표 _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73학번, 민주청년협의회 운영위원, 실천문화사 대표, 중앙대학교 민주동맹회 회장, (주)문화유통박스 대표(현)
백상태 _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73학번, <월간독서>·<소셜문학> 기자, 198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 당선, 동아그룹 홍보실 이사, 동아건설 상무, 프리랜서(현)
안정배 _ 중앙대 경제학과 73학번, 언론3단체 남북언론인 교류추진협의회 공동의장, 한국교원기자협회 회장, 중앙대 언론정보대학원 총원우회장, 조선일보사 출판국 차장(현)

1975년 6월 29일 일요일, 김기선(문리대 사학과 3학년), 백상태(정경대 정외과 3학년), 이석표(문리대 사복과 3학년), 안정배(정경대 경제학과 3학년) 등 중앙대생 4명이 검거되면서 표면화된 ‘시론정보사건’은 긴급조치9호 하의 중앙대의 자생적 학생운동으로서, 긴급조치9호 이후 대학가 최초의 지하신문 사건이다. 시론정보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의 물살틈없는 대학가 감시체제가 확고히 갖춰졌던 긴급조치9호 시절의 학생운동의 본모습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실제로 긴급조치9호 초창기에는 시위 조직이 어려워지자 지하유인물 사건이 주류를 이룬다.

긴급조치9호 후 최초의 지하신문 사건

문리대 이석표· 김기선과 정경대 백상태· 안정배가 유신철폐· 민주화운동을 위한 지하신문을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9호 발동 직후인 5월 하순이었다.

그해 4월 11일 발생한 서울농대 김상진 열사의 할복자결 이후 5월 22일에는 서울대에서 김상진 열사 추도식 시위가 있었다. 흑석동 긴급조치9호 첫 구속 4인방은 김기선, 안정배, 이석표, 백상태인데 대여섯 차례의 모임을 갖고 유신헌법 철폐 촉구와 김상진 열사의 양심선언문 소개, 긴급조치9호의 부당성을 알리는 지하신문을 만들기로 했다.

당시 김기선은 1974년 유신철폐 교내시위를 주도하다가 검거되어 노량진경찰서에서 구류를 사는 등 중앙대 학생운동의 핵심 중 한 명으로 턱수염을 기르고 다니던 교내의 유명인물이었다. 이석표는 문리대 중심의 교내서클인 민족사상연구회의 실질적 리더였으며, 김기선도 민족사상연구회의 핵심멤버였다. 영해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의 백상태는 민족사상연구회와 같은 이름의 지하서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총학생회장 후보로 지목되는 등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안정배는 “유신헌법의 독재성을 알리는 ‘헌법내용 알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이자”, “동아일보 백지광고는 바로 한국 언론의 실상이다” 등의 유신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투고· 게재하는 청년 자유기고가로 교내 학생운동권에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4인 모두 교내에 상주하던 중앙정보부원들과 사복경찰들의 감시를 받는 형편이었다. 이들이 교내 다방 등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던 것이다.

결국 교내 상주하고 있던 중앙정보부원들의 사찰망에 걸린 4인은 6월 29일 오전 10시경 ‘시론정보’ 인쇄 장소로 출발하기 위해 흑석동 소재 우리다방에 모였다가 전원 검거됐다. 이석표는 지금은 없어진 골판지로 만든 양복케이스에 가리방과 등사기를 가지고 갔다가 현장에서 압수당했다.

4인은 6월 28일 오후 교내 의혈탑 앞 잔디밭과 구내다방에서 모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시론정보’라는 지하신문을 만들기 위한 최종점검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다시 만나 각자 작성한 원고를 검토해 인쇄를 완료하고, 교내외 배포 계획 등 향후 활동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시론정보’ 만들어 다른 대학과 교내에도 뿌리기로

제호를 ‘시론정보’로 정한 것은 백상태의 아이디어였다. 처음 거론된 제호는 ‘의혈탑’,

‘중앙시론’ 등이었다. 유신 이후 중앙대에는 ‘의혈’이라는 제호의 지하유인물이 있었다. ‘의혈담’이나 ‘중앙시론’이란 제호는 곧바로 중앙대생들이 제작한 것으로 출처가 쉽게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 살포도 중앙대 교내로 한정된다. 실제로 처음에는 지하신문을 만들어 교내에만 뿌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석표가 반대했다. 긴조9호 하에 언론이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유신철폐 투쟁을 하려면 중앙대뿐 아니라 타 대학, 나아가서 고등학교에도 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시론정보(時論情報)’였다. 그런데 ‘시론정보’란 제호는 웬지 힘이 없어 보이고 너무 한가해 보였다. 이때 훗날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소설가로 데뷔하게 되는 백상태가 묘안을 냈다. 뜻 정(情)자를 바를 정(正)자로 바꾸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시론정보(時論正報)’라 써보니 새로움과 힘이 느껴졌다.

6월 28일은 마침 중앙대 학도호국단 창단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이날 시위 직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창단식에 교련복을 입고 강제 참석한 정경대·문리대생들 사이에서 ‘우우’ 하는 아우가 터져 나왔고, 그것이 확산되었다. 긴조9호 직전까지 격렬한 유신철폐 시위를 벌여왔던 중앙대생들은 “학도호국단 창단식에 결석하면 교련화점을 안 준다”는 강압에 못 이겨 창단식에 참석은 했으나 총학생회마저 종막을 고하는 현실에 분통이 터졌던 것이다. 시론정보 4인방들은 이날의 작은 소요가 시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불씨만 던지면 긴조9호 하에서도 유신철폐 시위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시인 유민주주의를 위반한 유신독재 치

호국단 창단식 직후에 만난 4인은 시론정보 창간호에 게재할 글들을 분담했다. 김기선은 시론정보 원고로 ‘왕정복고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시행할 만한 시민의식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유신체제보다 더욱 복고적인 왕정복귀를 주장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의 원고를 작성했다. 집회·시위를 금하고 그러한 사실을 보도조차 못하게 하는 ‘긴급조치9호’와 종신집권이 가능한 왕정 복고적인 ‘유신독재’를 역설적으로 비판한 글이었다.

백상태는 ‘시론정보’ 발간 취지문을 썼다. 그는 “현실의 여건을 슬퍼한다. 3권분립은 박살이 났고, 신앙은 파괴되고, 법률은 권력 보위를 위한 항구수단이 되고, 반공은 권력자의 독점

물로 오인되고…”라는 선동적 내용의 원고를 썼다.

이석표는 “최근 정부당국은 각종의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범을 묶어두려고 하고 있다. 복귀가 자력으로 남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나 대학인은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의 경제능력으로 볼 때 전쟁수행력은 명백히 갖고 있지 못하다. 정부와 공화당은 민방위법, 사회안전법 등 국가안보를 하기는커녕 국민대중으로부터의 정권안보만을 획책한다”며 정부 당국을 질타하는 글을 썼다. 실제로 4인이 구속된 날인 7월 9일, 유신국회는 사회안전법·방위세법·민방위기본법·교육관계법 등 월남패망 등을 빌미로 유신독재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4대 전시입법을 통과시켰다.

안정배는 ‘월남 패망의 교훈’ 등을 분석하면서 “현 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해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복귀 위협을 과잉으로 주장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에 위반되는 유신독재통치를 깨끗이 청소하고, 더 큰 불행이 오기 전에, 유혈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 반공민주 청년학도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락하라”고 촉구하는 ‘민주주의론’의 원고를 썼다. 4인의 경고대로 유신독재통치 끝에 1979년의 부마항쟁과 10.26 김재규 의사의 박정희 저격, 80년 광주항쟁 등 유혈사태가 왔다.

‘시론정보’에는 4인의 원고와 함께 김상진 열사의 ‘양심선언문’ 등도 게재하기로 했다. 양심선언문은 긴급조치9호 직전에 발행된 <신동아> 5월호에 실린 것을 옮기기로 했다. 신동아 5월호는 안정배가 검거현장에 갖고 왔다가 경찰서 철창 속에서 4인이 둘러가며 보기도 했다. 긴조9호 선포 직전에 나온 월간지여서 유신철폐 운동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긴조9호로 검거되어 철창 속에서 유신철폐 운동에 관한 기사를 재탐독한 셈이다. 긴조9호 선포 직후만 해도 대학가의 유신철폐 촉구 분위기가 일상화됐었음을 보여준다.

원래 계획은 일요일인 6월 29일 아침 흑석동 심용사탑공원 근처의 우리다방에서 만나 강원도 강촌으로 떠나는 것이었다. 지하신문 인쇄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등사기와 등사용품은 이석표가 준비했다. 하지만 정보부원 등의 학내 사찰망을 과소평가한 것이 실수였다. 이날 아침에 잔뜩 흐렸던 날씨는 오전 10시 약속시간 직전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흑석동이 고향이자 집인 안정배가 집에 우산을 가지러갔다가 다시 다방으로 오면서 골목길을 쫓아 오는 기관원의 미행을 눈치 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다방으로 다시 들어섰을 때는 4인의

동선을 추적해온 중앙정보부원들과 노량진경찰서 형사들에게 김기선·백상태·이석표가 검거된 상황이었다. 안정배를 뒤쫓아 왔던 기관원은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복 차림의 젊은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었다.

오들들 서울대생들 중앙대생 입소 열렬히 환영

4인은 검거 다음날인 6월 30일에 즉각 제적됐고, 노량진경찰서 생활을 거쳐, 7월 9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4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으며 ‘빨갱이 같은 놈들’ 이란 모욕적 언사를 듣기도 했다. 당시 영등포구치소에는 ‘오들들 시위’ 로 구속된 서울대생 25명과 이부영·이신범 등 긴조9호 위반 선두그룹들이 있었다. 중앙대 4인은 먼저 와 있던 이호웅·채광석·김정환·천희상·박연호 등 서울대 오들들 멤버들로부터 열렬한(?) 구치소 내 환영을 받았다. 원혜영(석방되었다가 그해 말 긴조9호로 다시 수감됨) 등은 집시법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안정배는 구치소 첫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같은 동에 있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이부영을 처음 만났다. 이부영은 안정배에게 “박정희가 죽기 전까지는 복학이 안 될 것이니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 위해서라도 영어 공부를 하라”며 영어원서를 입소 선물로 줬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우는 4인의 운명은 이렇게 시작됐다. 또 4인의 어머니들은 서울대 오들들 구속학생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뭉쳐서 매일 영등포구치소 면회실 앞으로 출근을 하면서 아들 옥바라지 겸 ‘어머니들의 투쟁’ 을 시작하게 된다. 이세중·이돈희 변호사가 서울대 오들들 구속학생들과 중앙대 시론정보 사건 4인을 무료변론 해주었다.

이 사건은 유인물을 만들기 직전에 4인이 검거됐기 때문에 당시 검찰도 서슬 퍼런 긴조9호 하에서도 구형량을 높일 사정은 못 되었다. 따라서 4명이 교내에서 집회를 한 것과 ‘시론정보’ 원고의 내용을 긴조9호 위반으로 기소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형일에 검찰은 처음엔 1~3년의 가벼운 구형을 했다가 담당 검사가 법정 밖으로 나가서 무언기를 다시 확인하고 와서는 구형량을 정정하며 ‘김기선 5년, 백상태·이석표·안정배 각 3년형’ 을 구형했다. 구형량도 상부의 지시를 받는 것임이 입증된 셈이었다. 1975년 12월 27일 1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시법 위반의 구류 전과가 있는

김기선은 주범으로 지목되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 과정에는 중앙대 정경대와 문리대 재학생 동료들이 대거 방청하였다.

동 로 굶아터진 발 끌고 석방 즉시 군입대

구치소 생활 중 동상에 걸려 굶아터진 발이 채 아물기도 전에 석방되자마자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등 백상태·이석표·안정배는 군대생활을 하게 된다. 병역을 마친 4인은 민청협(민주청년인권협의회)의 회원으로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활동하면서 10.26을 맞는다. 이석표는 ‘시론정보 사건’ 을 계기로 인생의 진로를 ‘민주화운동’ 으로 결정한다. 박정희 유신독재가 종식될 때까지 무한투쟁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김기선은 유신독재 타도 운동의 일환으로 통일사회당(당수 김철)에 입당, 선전부장으로 활동한다. 10.26 이후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도피생활 중에 80년 서울의 봄을 맞이한 이석표는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으로 송기원(문창과 68학번·소설가), 고 유인호(당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선생과 함께 군사재판을 받고 두 번째 감옥살이를 한다. 백남기와 김기선, 백상태도 80년 서울의 봄 때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다시 감옥생활을 한다.

80년 포고령 위반 대거 재구속 번 감옥살이

긴조9호 구속 이후 30년 간의 4인의 삶을 살펴보면 긴조9호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김기선은 통일사회당 선전부장으로 정당생활을 시작하여,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운영위원·민추협 기획위원·신한민주당 선전부장·통일민주당 국제부국장·민주당 인권위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개봉신협을 창설하였으며, 현재는 부패추방시민회 위원장으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이석표는 긴조9호 석방 후 대학선배인 송기원의 소개로 월간 〈바둑〉 편집부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출발한다. 이후 조성우·문국주 등과 어울리면서 민청협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 ‘카터방한 반대 화신앞 시위’, 10.26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출 저지 국민대회’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으로 80년에 두 번째 수감된다. 징역 7

년형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다. 그는 1983년에 '춘추사'란 출판사 사장으로 출판사업을 시작한다. 실천문화사 사장을 거쳐, 현재 (주)문화유통박스 사장으로 있다. 이석표는 실천문화사 사장 때인 91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 현물 제작 및 배포)으로 세 번째 구속돼 옥고를 치른다. 실천문화사가 출판한 정치이의 장편 소설 <빨치산의 딸>이 지리산 빨치산의 투쟁과 마르크스·레닌의 세계관을 찬양, 북한의 대남 혁명진술에 동조했다는 혐의였다. 그는 87년 6월항쟁 후 임현영, 임종철 등 선배그룹과 4인 등이 함께 만든 중앙대민주동문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60~70년대 중앙대 학생운동권과 80~90년대 학생운동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백상태는 1978년 문화평론가 임현영이 주간으로 있던 <월간독서>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1980년에 복학했다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다시 구속, 다시 제적되었다. 출감 후 <소설문학> 등의 잡지사에서 일하다가 84년 어렵게 복학해서 85년에 졸업한다. 졸업하던 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분단 문제를 다룬 단편 '어떤 묘(墓)가 당선되어 소설가가 됐다. 이 무렵인 85년부터 대학 선배 이재오가 의장으로 있던 서울민통련에서 활동하는 한편, 86년 후반 동아그룹 홍보실에 입사한다. 87년 6월항쟁 때는 서울민통련 멤버이자 동시에 백타이부대로 최루가스 자욱한 시청 앞을 누볐다. 6·29 선언과 양 김씨 분열 이후에는 회사 생활에 매진했다. 이후 동아그룹 홍보실 이사, 동아건설 홍보담당 상무 등을 지냈다. 지금은 프리랜서다.

안정배는 78년 육군 현역으로 제대 후 문래동과 안양의 파이프·철강 대리점에서 작업부겸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동아일보 광고사원으로 근무 중 10.26을 맞는다. 80년에 복학한 후 서울의 봄 때 포고령 위반으로 수배되어 손원대·경영준과 함께 청도 사과밭에서 피신생활을 한다. 81년에 매일경제 편집국 편집부 기자로 기자생활을 시작한 그는 전두환 정권 초기 정밀신문조화에 따라 프레스카드가 안 나오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근인 편집전문 기자가 된다. 그는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윤리강령기초위원·남북기자교류특위 위원장·통일언론상 심사위원 등으로 언론민주화를 위한 언론단체 활동을 한다. 1995년에는 31차 기해대의원대회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통일언론' 조항을 한국기자협회 강령에 추가하는 안을 발의해 채택된다. '언론3단체 남북언론인교류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아 남북언론교류의 기초작업에 매진하고, 광복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에 발표된 언론3단체의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의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언론3단체 '통일언론상' 제정도 그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2000년에는 한국교원기자협회장을 맡아 남북한 통틀어 최초인 <남북매스컴사전>을 발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기자로 근무 중 해직됐다가 복직하여 2005년 5월 현재 출판국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6월항쟁 등 30년 월을 민주주의의 만'로

시론정보 4인방은 10.26 이후 및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정기적 모임과 함께 각종 민주화 시위 등 관련 현장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특히 87년 6월항쟁 때는 백타이부대로 신세계 앞, 시청앞, 서울역 앞 등에서 서로 약속이나 한듯이 최루탄을 마시며 조우하여 시위 후엔 소주 한잔의 뒤풀이도 하곤 했다. 이들의 직장생활과 병행한 시국 참여는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다. 그 후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범 때는 그 감격을 함께 나누며, '탄핵 반대, 국회 탄핵' 촛불시위 등에는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등 30년 세월을 '동지에 로 뭉쳐 지낸다.

한편 시론정보 4인방 외에도 중앙대 출신으로 긴조9호로 검거·투옥되었던 투사들이 더 있다. 1975년 5월 명동성당 전대련(전국대학생연맹) 사건에 가담하여 긴급조치9호로 구속된 이명준(신방과 69학번)은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형을 선고받는다. 백남기(법학과 68학번)는 명동성당 이기정 신부에게 세례까지 받고 전대련 멤버로 활동했으나 한참 뒤에 검거되는 바람에 투옥은 면한다.

이재오(농촌경제학과 64학번, '66년 6·3 사태로 제적 96년 경제과 졸업)는 1977년 2월 긴급조치9호로 구형7년에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는다. 또 손원대(국문 73학번·현 행법사 사장)는 1979년 10월 부마항쟁 직후 교내 시위를 주도하다가 중앙정보부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던 중 10.26 직후에 풀려난다.

80년 '서울의 봄'에 대폭발한 '흑석동의 봄'

1980년, 시론정보 4인방은 '흑석동의 봄' 중앙대 시위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바, 민주화 대장정 과정에 축적됐던 중앙대의 역량이 한꺼번에 대폭발했다. 또 80년 복학한 송기원·백

남기·백상태·안정배·경영준·손원대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중앙대 산업민주주의연구회(산민회)라는 서클은 전두환 정권 시절 중앙대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손원대는 정오문화회 소속이었는데, 정오문화회는 중앙대 내 학생운동의 거점으로서도 그 역할을 해왔다.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과 79년 남민전 사건 등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른 61학번 임현영(문학평론가, 현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신상웅(소설가, 전 중앙대 문창과 교수) 등이 만든 문학회 '전초'가 이 서클의 전신이다. 약학과 71학번 임종철(현 한미약품 홍보지문 위원·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 공동대표 역임)도 '정오' 소속이었다. 1988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을 창립해 초대·4대 회장을 지낸 그는 1973~74년 정오문화회 회장으로 약대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1975년 초 교지 <중앙문화> 편집을 하면서 그 내용이 문제가 돼 조기징집되는 바람에 감옥생활은 면(?)한다.

1960년대 말~70년대 초반 중앙대 학생운동의 핵심은 백남기(법학과 68학번, 전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 부회장)와 이명준(신방과 69학번, 현 아이마스 회장), 남철희(정외과 69학번, 현 71동지회 사무총장), 임종철 등이다. 백남기·남철희는 1971년 위수령 때 제적됐고, 이명준은 1975년 '명동성당 7인위원회'의 일원이다.

번째 제적 후 고향 내려 농사에 전념

71년 제적됐다가 복학한 백남기는 75년 명동성당 전대련 사건으로 두 번째 제적돼 수녀원·수도원 등에서의 날뽕팔이와 인천 포도밭 머슴살이를 하다가 1980년에 복교한다. 그는 80년 포고령 위반으로 세 번째 제적과 감옥살이를 한 후 고향 전남 보성으로 내려가 농사에 전념하고 있다.

80년 복교생 중에는 송기원이 백남기와 같은 68학번으로 최고참이었다. 1975년 긴조9호 발동 직전인 3월 11일 중앙대 예술대의 '대학인의 선언' 시위를 주도해 제적된 송기원은 74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신춘문예에 시와 소설이 동시에 당선되어 등단한 문인 겸 나이 많은 학생이었다. 그는 80년 서울의 봄 때 중앙대 복학생 그룹의 리더로 '유신잔당 퇴진을 위한 단식을 시작하며' 등의 각종 선언문을 최종 감수하곤 했다.

75년 중앙대 4·9시위 주동으로 제적됐던 김영철(사회사업학과 73학번·소설가)과 경영

준(도서관학과 73학번·성신여대 근무)도 80년에 복학했다. 75년 이들과 함께 제적됐던 고 최경상(행정학과 74학번)은 강제 징집되어 군복무 중 의문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김영철은 1학년이던 1973년 10월 시위 때 교양과정부 데모를 주동했다. 1975년 4·9시위 때는 비상총학생회장을 맡아 경영준과 함께 제적됐다. 그는 1978년 제대해 민청협 활동을 했다. 이문구·송기원·이시영 등과 세계시인대회에 참석해 김지하 석방투쟁을 벌이다 구류를 살았고 카터 방한 반대 데모를 주도하기도 했다. 임현영·이재오 등과 남민전 사건에도 연루됐던 그는 감옥에서 10.26을 맞아 80년 늦봄에 석방된다.

'유신잔당 반민주행위 규명' 모의재판도

1980년 '흑석동의 봄'은 이들 68학번 송기원·백남기와 73학번 이석표·김기선·백상태·안정배·김영철·경영준·손원대 등 1970년대 중앙대 학생운동 멤버가 총집합한 복학생 조직이 주도한다. 이석표는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수배 중이라 복학하지 못했고 김기선·김영철은 복학을 늦추고 있었지만, 함께 80년 '흑석동의 봄'을 논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복교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나 새 학기 학생운동 전략을 논의했다. 4월 10일부터 일주일 간 단행한 '유신잔당 재집권 음모 분쇄 및 학원민주화를 위한 복교생 단식농성'도 그 부산물이었다. 복학생 그룹은 기존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총학생회를 부활시키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백남기가 부회장을 맡았다. 5월 7일과 8일의 '계엄 철폐, 유신잔당 퇴진'을 구호로 한 햇불시위와 교내시위는 복교생 그룹과 총학생회(회장 조석제)의 합작품이었다. 교정에는 꿈에서도 그리던 '민주주의 만세!'라는 대형 현수막이 높이 걸려 바람에 펄럭였다. 정문앞 시위 후 도서관 안에서는 백상태가 재판장이 되어 '유신잔당 반민주행위 규명 모의재판'도 거행했다. 당시 재학생 중 조석제(정외과 72학번)와 윤미량(정외과 78학번, 후에 행정고시 합격) 등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체포·조사를 받고 구속은 면하고 풀려난다.

서울역에서 다시 거행된 유신잔당 장례식

80년 '서울의 봄' 때 '흑석동의 봄' 중앙대생들의 맹활약 상황은 <뉴스메이커> 2004년 6월 17일자 '긴조9호 세대 대탐험 - 중앙대 문학전사들, 썩은 문인은 붓대를 꺾어라(글 신동

호)가 박진감 넘치게 기록하고 있어 이를 인용하면서, 30여 년 간 불렀던 가슴 뜨거운 구호를 다시 외쳐본다. “민주주의여 만세!”

(전략) ‘... 1980년 중앙대 시위의 하이라이트는 5월 14일 서울역 진출과 동시에 결행한 ‘유신잔당 장례식’이었다. 이날 복교생과 총학생회 지휘로 중앙대생 4,000여 명이 서울대·송실대 등 남부지역 시위대와 합류해 노량진, 여의도, 마포를 거쳐 서울역으로 진출했다. 당시 서라벌고에서 교생실습 중이던 송기원은 이날 낮 12시쯤 조퇴를 하고 뒤늦게 흑석동에 도착했다. 이미 시위대의 주력은 학교를 빠져나가 교내에는 총학생회 부활 축제의 일환으로 계획된 유신잔당 장례식에 참여할 의대, 약대, 예술대생 등 일부만 남아 있었다. 유신잔당 장례식은 안정배의 아이디어였다. 상여는 백남기가 흑석3동의 목공집을 수배해서 제작한 뒤 교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상여행렬 인솔은 송기원, 손원대 등이 맡았다.

뒷날 ‘김대중 일당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송기원은 항소이유서에서 유신잔당 장례식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학교에 도착해 총학생회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듣고 오후 3시부터 장례행사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장례식을 마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대·약대생이 상여를 땀다. 송기원이 상두기를 선창했고, 상여 뒤로 1,000여 명의 시위대가 뒤따랐다. 이들이 교내를 한 바퀴 돌고 정문에 이르렀을 때 경찰은 철수한 상태였다.

오후 3시 반에 출발한 장례행렬은 노량진, 영등포, 여의도, 마포, 서대문, 시청 앞을 거쳐 8시께 서울역에 도착했다. 4시간 30여 분의 대장정이었다. 시위대는 비를 맞아 더욱 처연해 보였다. 흰 가운을 입고 상여를 멘 선두와 비를 맞으며 뒤따르는 행렬을 본 시민들 사이에 “시위로 학생이 죽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송기원·손원대 등은 서울역에서 유신잔당 장례식을 다시 치른 뒤 석유를 뿌려 젖은 상여를 불태웠다.

직, 간접적으로 긴급조치9호라는 터널을 처절하게 통과했던 이들 9명은 5·17계엄확대조치와 함께 장렬하게 ‘산화’ 한다. 백남기·백상태는 이날 흑석동 교정 기숙사에 있었다. 이른날 새벽 탱크를 앞세운 군이 교내에 진입했을 때 백상태는 탈출하고 백남기는 기숙사에서 체포된다. 안정배·경영준은 총학생회관에서 다음주 시위 계획을 논의하다 복교생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정보를 듣고 피신한다. 송기원·이석표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중형을 받는다.

백남기·김기선·백상태는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된다. 같은 혐의로 수배된 안정배·경영준·손원대는 8월 하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기소와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의 정계은퇴 발표 때까지 몸을 피해 구속을 면한다. 김영철은 계엄군에 연행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한다. 1970년대 중앙대 학생운동은 ‘문학’이 결합된 운동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대부분이 ‘글’로 먹고사는 길을 택하기 때문이다. 송기원뿐 아니라 임종철·백상태·김영철·손원대도 문단에 데뷔하고 안정배는 신문기자, 이석표·손원대는 출판업에 투신한다.(후략)